

## 월병(月餅)과 송편에 관한 담론

- 중국의 중추절(仲秋節)과 한국의 추석(秋夕) 문화 비교 연구-

< 2015급 비교문학 석사 연구생 김미란 >

### 1. 들어가면서

이미 현대 사회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이라는 초국가적인 개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슬로건(slogan)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활방식과 구성원들의 사고에 이미 내적인 설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는 점차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전 세계를 향한 끝없는 국가들의 경쟁시대가 대두되었다. 가족주의 해체는 전통적인 사상, 관습 한 부분의 해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경쟁에 휘둘러 사는 현대인들은 공동체가 가지는 전통적 문화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전통성과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방치하고 ‘국제화’를 외치며 세계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존재의 상실의 결과를 가져 올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과 한국의 전통 명절인 중추절과 추식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화 연구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에서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sup>1)</sup>란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학문이다. 문화 연구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비교 연구, 현지 연구, 질적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상의 세 가지 연구 방법 중에서 ‘문화 비교 연구’<sup>2)</sup>로 분석해 본다. 더 나아가 한 문화군의 일반인이 향유하는 전통적인 일상 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학문인 민속학적인 연구 방법으로도 함께 접근해 보려한다.

1) 대한고시연구원, 《한국의 현대 문화》, 대한고시연구원, 2016, p.p.8~11.

2) ‘문화 비교 연구’는 둘 이상의 문화를 비교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하려는 문화 이해방법이다. 이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 연구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고 그 문화의 특징을 찾아내게 된다. 더 나아가 각기 자신의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 2. 중국의 중추절(仲秋节)과 한국의 추석(秋夕)

중국의 중추절(仲秋节)과 한국의 추석은 모두 음력 8월 15일이다. 이 두 명절은 긴 역사 속에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농경사회였던 두 나라에서는 농사를 마치고 가을의 한 가운데의 즈음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 속에 제의(祭儀)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명절이었다. 이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함께 먹고 정을 나누며 한 해의 풍성함을 즐겨왔다.

이렇게 매년마다 동일한 날짜에 이어져 온 두 나라의 명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다. 보편적인 관념으로는 동일한 유교권의 국가인 중국과 한국의 명절은 같은 기원과 풍습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중추절과 추석을 문화적 측면에서 비교 연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고유 명절의 상징성과 전통성도 되짚어 보고자 한다.

### 2.1. 세시풍속(岁时风俗) 시각에서 비교

세시풍속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여 행하는 특수한 생활양식을 가리킨다.<sup>3)</sup> 즉,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 년 동안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농경사회였던 중국과 한국의 세시풍속은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까지 깊은 연관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세시풍속의 시각에서 두 명절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마다 행해지는 세시명절이면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각별하게 보냈는데 이는 바로 생활의 마디로서 긴장에서 이완을 하는 때였으며 다음 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했다.<sup>4)</sup> 둘째, 이러한 세시풍속과 명절 속에는 일종의 종교적 특성이 있어왔다.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은 풍요와 건강과 자연으로 부터의 보호 등을 기원하는 종교적 제의(祭儀)를 하게 되었다. 그것이 특정한 절대신이 아닌 조상신이나 농사와 관련된 초자연적인 누군가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원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때가 되면 다양한 전통적 풍속과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져서 집단적 즐거움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큰 명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명절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해 보면 각각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거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의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세시풍속으로 정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진나라 이전부터 ‘中秋’라는 이름으로 중추절이 존재했다고 본다. 이시

3)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p.1.

4) 김명자, <한국세시풍속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기의 중추절의 특징은 원시 신앙적이고 금기의 성격이 강한 절기를 보냈다.<sup>5)</sup> 시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 명절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원시성과 금기성을 벗어나 오락성 명절로 변모하게 된다. 한대(漢代)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사를 올리는 풍습이 성행했다. 또한 불교의 유입으로 동한(東漢)초기와 남북조(南北朝)시대를 거치면서 세시풍속인 중추절의 절기적 풍습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명.청대(明.清代)를 거치면서 어른을 배알하기도 하고 첩자(帖子)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에서는 신라 유리왕 9년에 오늘날의 추석의 기원이 되는 ‘가배절’이 탄생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 ‘유리이사금 조’에 의하면 유리왕은 음력 7월 가망(16일)에 부녀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 길쌈(베짜기)을 경쟁시켰다. 음력 8월 15일까지 두 왕녀의 책임 아래 길쌈하기를 한 결과를 왕과 왕비 그리고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우열을 가려 발표하였다. 이날을 가배(嘉俳)라고 불렀다. 이후 가배가 가뱃날(가윗날)로 불리웠다. 그 후 고려시대에 와서 중국의 명칭 ‘中秋节’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에는 신라와 고구려의 풍속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도교, 불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의 수용으로 명절의 풍습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추석을 중추(中秋), 월석(月夕)이라 했는데 《예기》에 나오는 조춘일(朝春日), 추석월(秋夕月)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추석날 밤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월석’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추’나 ‘월석’이니 하는 말을 합해서 축약하여 ‘추석(秋夕)’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그 후로 이 날을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부른다. 이는 모두 ‘한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날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2.2 명절의 문화 비교

위에서 세시풍속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여 기원과 역사적 변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명절이 가지는 고유성인 제의적인 면과 집단 축제적인 공통점을 밝혔다. 이러한 명절이 돌아오면 중국과 한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과 한국의 큰 명절로 자리 잡은 중추절과 추석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 2.2.1 명절 음식

명절의 가장 즐거운 것은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고 먹는 일이라 할 것이다. 중추절과 추석 명절에 먹어왔고 또 지금도 먹고 있는 특별한 음식에 관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절기가 되면 집집마다 챙겨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의 몇 가지를 살펴본

5) 김지영, <한.중 명절문화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27-29.

다.

중국에서는 중추절이 되면 월병(月餅)을 먹는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다. 월병은 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영어로는 ‘Moon cake’이라고도 한다. 옛날 월병은 정면에 빨간 네모난 도장을 찍는데 어떤 것은 꽃모양이고 어떤 것은 ‘월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을 채색 월병이라고 한다.<sup>6)</sup> 옛날부터 중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달맞이를 하면서 월병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월병은 중국 남송시대(南宋时代)부터 전해지는 과자로 음력 8월 15일에 둥근달의 모양을 상징해서 만든 것이다. 이날을 가족들이 모이는 날짜로 정했기 때문에 중추절을 단원절(團圓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월병을 단원병(團圓餅)이라고도 부른다.<sup>7)</sup>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전통은 원나라때 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주원장은 한족을 거느리고 원나라의 폭정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음력 8월 15일에 일제히 거사를하기로 약속하고 월병 속에 소식을 담은 쪽지를 넣어 선물을 하듯 월병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습관은 이렇게 민간에게 전해졌다. 그 후 주원장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의 첫 황제가 되었는데 훗날 만족이 중국에 들어와 청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사람들은 오랑캐로부터 통치권을 찾아던 이 명절을 계속 경축하였다고 한다.<sup>8)</sup>

옛날에는 월병을 먹기 전에 월병을 자르는 재주를 보곤 했다. 가족의 수대로 월병을 잘라서 가족들이 한 조각씩 나눠 먹었다. 임산부가 있으면 한 사람의 몫을 더 잘라야 하는 재미있는 풍습도 있었다. 중추절이 되면 중국에서는 서로 월병을 선물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월병을 나누어 먹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월병은 단순한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중추절에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과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단어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추석이면 송편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송편은 멥쌀가루를 반죽하고 팥콩과 깨, 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모양으로 빚어서 시루에 술잎을 켜켜로 놓고 찐 떡이다. 그래서 송병(松餅) 또는 송엽병(松葉餅)이라고도 부른다.<sup>9)</sup> 송편은 17세기부터 기록에 나타나는데 1680년에 쓰여진 《요록(要錄)》에 의하면 송편은 “백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술잎과 켜켜로 찌서 물로 씻어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송편은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는 추석이면 으레히 송편을 빚거나 사서 먹고 있다.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떡을 빚는다. 사람들이 열을 숭상하여 달에게 소원을 비는 민간신앙을 가지면서 반달모양을 채택한 것은 반달이 점점 보름달이 되어가는 발전의 상징으로 본데서 온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의 도성의 명칭 중에 반월성이

6)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p.47.

7) 常建华, 《岁时岁月里的中国》, 北京, 中华书局, 2006, p.185.

8) 王文全, 《中國傳統節日趣談》,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p.135.

9) 황혜성,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한 우리음식 백 가지》, 현암사, 2005, p. 215.

많은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sup>10)</sup> 이와 같이 송편은 단지 음식의 명칭뿐만 아니라 추석이라는 명절이 가지는 다양한 상황과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추석의 명절 음식으로는 햅쌀밥이 있다. 그 해에 추수한 햅쌀로 밥을 지어서 제를 올리고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것은 필수적인 풍속이다. 그리고 찢 찹쌀가루를 쳐서 떡을 만들고 콩가루나 참깨가루를 묻혀 먹는 인병(인절미), 햅쌀로 빚은 백주를 차례상에 올린 후 서로 나누어 먹는다.

또한 안주로 황지(黃鷄)를 들 수 있는데, 봄에 알을 낳은 병아리를 길러서 추석 때가 되면 잡아먹기에 알맞게 자란다. 또 옛날에는 명절에 어른에게 선사 하는 데에 닭을 많이 썼다. 친정에 근친하러 가는 딸은 닭이나 달걀꾸러미를 가지고 갔으며, 경사가 있을 때에도 닭을 선물했으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손쉬운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특히 사위가 찾아오면 장모는 닭을 잡아 대접하는 일이 흔했다.

이 날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토란국이다. 잔치 상에 잘 오르는 토란은 몸을 보(補)한다고 해서 즐겨 먹었다. 추식에 햇토란을 수확해서 햇음식을 먹는 관습에 의해서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토란탕은 특히, 알칼리성 식품으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추식에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줌으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sup>11)</sup>

### 2.2.2. 감사의 제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추절과 추석은 제의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숭배의 대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배월(排月)’이라고 하는 제의적 풍습이 달을 향하여 제를 올렸다면 추석의 ‘성묘’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다. 이러한 두 의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중국의 중추절은 달이 주체가 되는 명절로 본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로 달에 제(祭)를 올렸는데 이것을 배월(排月)이라고 한다.<sup>12)</sup> 일반사람들은 중추절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월신(月神)께 제를 올렸다. 고대사회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달에게 감사했고 이러한 달을 고마운 존재로 여겨 배월풍속이 발달하게 되었다.<sup>13)</sup> 그러나 당대(唐代)의 기록에 의하면 중추절에 달을 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하나 흥미가 적어서 한식(寒食)이나 단오(端午)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중국 북경에 있는 월단(月壇)은 달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중추절 밤에 달이 떠오르면 월병과 석류, 수박 등의 과일을 제사상에 올리고 배월을 올리고 있다. 이 과일들은 보름달처럼 둥근 것이 특징이며 모든 일이 둥근달

10) 김지영,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08.

11) 김지영,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01.

12) 한창수, 김영구, 《중국문화개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10, p.72.

13)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 p.p.46-47.

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배월이 끝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달을 감상한다.<sup>14)</sup>

한국에서는 추석이면 햅과일과 햅곡식으로 만든 송편을 가지고 조상의 묘를 찾는다. 이것을 성묘라고 하는데 조상에게 예(禮)를 표하는 풍습이다. 조선 후기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후에 일제강점기 때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추석이 명절로 정해져 성묘를 가서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성묘를 갔을 때 산소의 봉분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 절을 하려고 해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면 이 이상의 불효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음력 8월로 접어들면 자손들은 우선 산소에 가서 배례(拜禮)를 하고 봉분을 비롯한 주의 잡초를 정성껏 깎는다. 이것을 벌초(伐草)라고 한다.<sup>15)</sup>

중추절과 추석이 되면 두 나라에서는 제의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월과 성묘.벌초’를 통해 풍성한 가을에 감사의 제례를 챙기는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특정 대상에게 올리는 근원적인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 2.2.3. 명절의 놀이와 행사

중국에서는 중추절의 경축행사로 '등회(灯会)'가 벌어진다. 각양각색의 연화마등, 금용비무, 채색등, 판용채등과 같은 행사들이 있다. 현대에 와서도 각 지역의 문화거리에서 등불놀이를 한다. 또 등불아래 수수께끼가 적힌 종이를 달아 놓고 사람들이 다 함께 수수께끼를 푸는 데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도 한다.<sup>16)</sup>

또한 중추절에는 '모추구자(摸秋求子)'라는 놀이를 한다. 중추절 전날 밤 부녀자들이 짝을 지어 과일밭이나 콩밭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데 호박을 만지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하했고 콩을 만지면 딸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陝西 지방에는 이날 밤에 자식이 없는 집은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붉은 대추(紅棗)등을 만지는데, 枣(zǎo)와 早(zǎo)가 諧音 관계이기 때문이다.<sup>17)</sup>

'상계관조(賞桂觀潮)'는 중추명월 밤 달구경 이외 계수나무를 구경하는 것도 풍속이 있다. 계수나무는 월궁에 있는 식물로 선령(仙靈)의 기(氣)가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계수를 감상하고, 조수를 즐긴다.<sup>18)</sup>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 ‘강강술래’라는 놀이를 하게 된다. 이것은 특이하게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놀이다. 추석날 달밤에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성향이 강한 민속놀이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또 다른 기원설에 의하면,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압

14) 김용덕, 《민속문화 대사전》, 창술, 2004, p.1018.

15) 김용덕, 《민속문화 대사전》, 창술, 2004, p.778.

16)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 p.46.

17) 김일, <중국 해음 문화에 관한 연구>, 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18) 한국민속학회편저, <故南岡金泰坤教授 追慕特輯>, 「한국민속학보」 제 7호, 1966.

도적으로 불리한 숫자의 조선군의 이순신장군이 우리 군의 숫자를 많아 보이게 하려고 옥매산 위에 부녀자들을 남장시키고 빙글빙글 돌게 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왜군이 퇴각하였다고 하여 해마다 추석이 되면 강강술래를 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 민속문화 대사전》에 의하면 ‘강강술래’라는 용어는 ‘强羌水越来(강강수월래)’라고 표기하는데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강강술래’는 원시시대의 부족이 달밤에 축제를 벌여 노래하고 춤추던 유습(풍습)에서 비롯된 민속놀이라고 보고 있다. 고대로부터 한민족은 달의 운행 원리에 맞추어 자연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세시풍속에서 보름달이 차지하는 위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달이 가장 밝은 추석에는 고대인들은 축제를 벌여 춤과 노래를 즐겼고, 이것이 정형화되어 ‘강강술래’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강강술래는 오늘날 문화재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었다.(1996년) 전라남도의 서남해안 지방에서 소장되어 전승되는 놀이지만 대중화 되면서 학교나 단체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민속놀이가 되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한반도 곳곳에서 강강술래의 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추석에 행해지는 놀이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소놀이’는 추석날 차례를 마치고 난 뒤 진행하는 놀이로,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다가 소놀이로 이어진다. 두 사람이 명석에 들어가 소 흉내를 내는데, 앞사람은 막대기 2개로 소 뿔 시늉을 하고, 뒷사람은 새끼줄로 꼬리를 단다. 이들은 부잣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고 외치면 주인이 나와서 술과 떡과 찬을 차려 대접한다. 소놀이를 할 때는 당년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집을 찾아가 해가 질 때까지 어울려 논다. 이 때 그 집의 머슴을 소에 태웠는데,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행했다고 한다.<sup>19)</sup>

‘반보기’는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가기 어려워, 친정 부모가 추석 전후로 사람을 보내 만날 장소·시간을 약속하여 시집과 친정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이다. 지금은 이 풍습이 없어졌지만 추석 뒤에 음식을 장만하여 친정에 가서 놀다 오게 한다. 또한 마을의 여인들이 이웃 마을의 여인들과 경치 좋은 곳에 집단으로 모여 우정을 두터이 하며 하루를 즐기는 수도 있다. 이때에 각 마을의 소녀들도 단정하고 참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머느릿감을 선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반보기란 중간 지점에서 상봉했으므로 회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sup>20)</sup>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편과 함께 추석 명절에 인사를 가고 친정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전통적 문화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활동을 해 왔고 명절이라는 구심점으로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결속의 의미를 갖는 놀이를 해

19) 김지영,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99.

20) 위의 논문 p.100.

왔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 2.2.4. 달(月)의 상징성

달이 생성하고 성장하여 다시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반복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아왔던 농경을 주로 하던 중국과 한국의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곡식의 씨를 뿌리면 성장하고 추수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개념은 달에 대한 숭배와 예를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추절과 추석은 그 흐름 속에 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가하게 되는 명절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달이 단결과 화목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 날을 단원절이라고 했으며 둥근 모양의 월병을 나누어 먹고 온 가족이 모여 원만한 삶을 기원했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 달을 감상하며 타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고 반대로 타향에 있는 사람은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백(李白)의 시 ‘정야사(靜夜思)’는 이러한 마음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床前明月光, : 침상 앞 밝은 달빛,  
疑是地上霜。 : 땅에 내린 서리인 줄 알았다네.  
举头望明月, : 고개 들어 밝은 달 바라보고,  
低头思故乡。 :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이 시는 달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는 애뜻함이 드러난다. 고향이라는 것은 가족과 연결되며 달을 통해 객지에서 가족을 그리는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달의 상징은 ‘화목’, ‘모임’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달의 이미지가 음(陰)의 이미지로서 ‘여인’, ‘다산’, ‘풍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달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풍요로움을 기원하기도 하고 달에게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다.

한국인들은 추석이 되면 조상 숭배 사상과 관련된 행사가 펼쳐지는데, 곡식을 잘 여물게 해준 달에게 감사하는 숭배사상이 후에 조상숭배 사상으로 바뀐 것이다. 올해 나온 햇곡식을 조상에게 대접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고대에는 중국 사람들은 별을 보고 농사짓지만, 한국 사람은 달을 보고 농사짓는다고 한다. 달은 생성, 성장,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은 곡식의 생성, 성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21)</sup>

이렇게 중국에서는 화목의 의미로 중추절의 달을 바라본다면 한국에서는 추수의 감사에 대한 숭배의 의미로 달을 인식하고 있다.

21) 김지영,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07.



### 3. 현대 사회에서의 전통 명절

현대인들의 생활은 고대의 생활 모습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일반화 되었고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풍속을 그대로 답습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유형의 고대의 가족형태가 이미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유형이 극도로 다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나라의 가장 큰 민속 명절중의 하나인 중추절과 추석에는 전통 풍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생활의 흐름 속에 다소 변화된 명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절 즈음이 되면 집이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귀향의 마음은 여전하지만 직장문제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이것마저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명절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그나마 월병이나 송편 같은 대표적인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는다는 달을 바라보며 풍요로움에 젖어보고 화목을 소원하는 일들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이라 하겠다.

상가나 백화점에 명절 용품이 등장하지 않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상업적 광고나 뉴스 등을 통한 명절에 대한 보도가 없다면 중추절과 추석을 기억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농경사회였던 고대 사회와는 다르게 전통 명절과 그 문화에 대한 관념이 많이 흐려지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개인 위주나 가족 중심 또는 동호인들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공감대를 통한 명절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결국은 가족 중심이었던 전통 명절과 전통적인 문화가 경제적인 매상의 정점이 되고 새로운 제품을 대량 소비하는 상업적 호기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미루어 두었던 여행을 위한 적절한 시기로 취급되어 소비의 절정을 이루는 ‘황금연휴’라는 이름으로 각인 되어가고 있다.

### 4. 나가면서

이상에서 중국과 한국의 전통명절인 중추절과 추석에 대해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두 나라의 명절에 관한 기원과 풍습은 다르지만 그 속에는 가을의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이 명절이 돌아오면 ‘배월’ 그리고 ‘성묘.별초’ 라는 특정 대상에게 예(禮)를 표하고 감사의 제의를 하는 등 다양한 문화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전통 문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도 유추

해 보았다. 가족의 해체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이러한 전통 명절의 특징은 가족을 하나로 다시 묶어주는 아름다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명절의 전통적인 풍속과 관념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희석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변화와 혁신이 반복되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른 관념과 행동 양식을 가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시대 이전의 문화와 역사는 존재했고 그것의 토대위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 명절인 중추절과 추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적 의미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명절 문화를 접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추절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감과 즐거운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 진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추석의 다른 명칭)만 해라.’라는 속담도 있다. 그것은 이 전통 명절들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시기적인 요인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명절의 기원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스마트폰의 새로운 모델이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월병(月餅)과 송편을 먹게 되는 중추절과 추석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 참고자료

- [1] 대한고시연구원, 《한국의 현대 문화》, 대한고시연구원, 2016.
- [2] 김용덕, 《민속문화 대사전》, 창술, 2004.
- [3] 황혜성,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한 우리음식 백 가지》, 현임사, 2005.
- [4] 王文全, 《中国传统节日趣谈》, 呼和浩特, 内蒙古人民出版社, 2006.
- [5] 常建华, 《岁时岁月里的中国》, 北京, 中华书局, 2006.
- [6] 한창수·김영구, 《중국문화개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
- [7] 한국민속학회편저, <故南冈金泰坤教授 追慕特辑>, 「한국민속학보」 제7호, 1966.
- [8] 김지영, <韩·中名节文化比较研究-语源, 由来, 风俗, 饮食 中心>,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9]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
- [10] 김명자, <한국 세시풍속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11] 김일, <중국 해음 문화에 관한 연구>, 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